

광주시, 2조5천억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사활

과기부, 비수도권 센터 설립 추진 포항 등 전국 지방도시 경쟁 나서 광주 AI데이터센터 운영 등 강점 "AI산업 도약·기업투자 위해 총력"

정부가 2조5000억원대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에 나선 가운데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가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사업으로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AI 서비스 개발과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 우선 활용될 수 있는 국가 AI 인프라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연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다. 향후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추가 투자를 더하면 2엑사플롭스 규모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외국산 첨단 GPU를 우선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비중을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비수도권에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어서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방도시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 사업설명회에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남도, 대구시, 전북도, 포항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 AI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민간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SPC가 구축을 맡아야 한다.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51%, 49%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총 4000억원을 출자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SPC 지분의 최대 30%(각 15% 이내)를 출자하고, 2027년까지 투자금 2조~2조5000억원을 저리 정책금융으로 빌려주는 형태다.

컨소시엄도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KT나 SKT, LG 등 통신사와 네이버나 구글 등의 클라우드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는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컴퓨팅 서비스 모델 구성, 제공 방안, 서비스 로드맵,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부가 서비스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학·연구소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AI 연구개발, AI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 지원 방안도 담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정부에 사업참여의향서



광주전남 여행업계 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총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선석현 광주시관광협회 회장, 홍일성 전남도관광협회 회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김영신 전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과 광주·전남 여행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관련기사 4면 김양배 기자

를 제출하면 세부 평가기준과 가산점 등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계획서 접수는 오는 5월19~30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로서 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내세워 광주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 2023년 11월15일부터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AI 기업, 공공

기관, 대학 등 총 수백건의 과제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주에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이미 구축돼 있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활용할 수 있어 AI 기업이나 학교 등은 여러 곳을 돌아 다니지 않아도 광주에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광주시는 AI 인재양성과 AI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 AI 산업 수요와 성장 속도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컴퓨팅 자원을 할당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업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GPU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주에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서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귀화선수' 전남 예카테리나,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7.5km 스프린트서 우승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인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34·전남체육회·사진)가 한국 바이애슬론에 사상 첫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겼다.



예카테리나는 11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에서 22분45초 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12번째 금메달이자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이전까

지 은메달(2003년 아오모리 대회 남자 계주)이 최고 성적이었던 한국 바이애슬론의 사상 첫 금메달이다. 러시아 출신인 예카테리나는 2018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6년 12월 한국에 특별 귀화해 2018년부터 8년 연속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은 이번이 처음인 예카테리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스프린트 종목에서 입상은 예상했으나 금메달 후보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 역사를 썼다. 예카테리나는 경기 초반 2.4km까지 선두로 치고 나가다 중국의 탕자린에게 선두를 내주며 2~4위권에서 달렸다.

6.0km를 통과할 때 탕자린에게 2초가량 밀린 2위로 달리던 예카테리나는 막판 힘을 내며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예카테리나는 이번 메달 획득으로 스승인 김상욱(54) 전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 감독과 '사제지간 동계아시안게임 메달 주인공'이 됐다. 김상욱 감독은 지난 1990년 제2회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관련기사 14면 최동환 기자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대회장소 승촌보

대회코스 승촌보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40,000원 (기념품 지급)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5년 4월 3일(목) (선착순)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